

첫 자녀 출산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 및 예측요인*

서미정¹⁾

요약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생 후부터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아동패널의 5개년 자료(1차년도~5차년도)를 활용하였고, 최종 표본은 첫 자녀를 출산한 984가구이다. 먼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패턴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혼만족도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였고, 모든 측정 시점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은 통제변수인 어머니의 취업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는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결혼만족도, 아버지 양육참여, 부부갈등, 잠재성장모형

I. 서론

첫 자녀 출산은 부부중심에서 자녀를 포함하는 새로운 가족체계로의 변화를 맞이하며, 일반적으로 결혼 초기 단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생활 사건 중 하나이다. 임신부터 첫 자녀 출산 후 약 1년까지를 부모기로 전이(transition to parenthood) 시기라고 한다(Butler, 1987; LaRossa, 1986).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추가로 획득한 부모 역할로 인해 부부관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부모됨 이후 결혼을 평가하는 데 연구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초반에는 결혼 안정성, 결혼 적응, 결혼의 질,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201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2018.11.3.) 포스터발표문의 전문임.

1)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부교수

같은 여러 지표들을 이용하여 결혼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서로 다르지만 중복되는 개념을 나타낸다(Bradbury, 1995; Fincham & Bradbury, 1987). 이 가운데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질에 대한 부부들의 전반적인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는데(Fincham, 1998; Kluwer, 2010; Li & Fung, 2011), 주관적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용어들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개인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은 결혼의 특정 영역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의 정서적 분위기를 결정한다(Hawkins, Carrere, & Gottman, 2002). 이러한 전반적 감정은 결혼의 성공적인 기능과 부부의 주관적 행복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 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혼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 중에 결혼만족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김연하, 2016; Kurdek, 2005; Vaillant & Vaillant, 1993),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기로 전이한 부부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고선주·옥선화, 1993b; Belsky & Kelly, 1994; Belsky & Pensky, 1988).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비교적 일관적이다. 예를 들면, 1980년과 2000년의 대규모 조사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에게 비해 덜 행복하고, 더욱 갈등적이며, 더 많은 문제를 보고하였다(Amato, Booth, & Johnson et al., 2007). 이와 같은 횡단적 연구결과들을 통해 첫 자녀 출산 후 부모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감소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부모됨은 한 시점의 위기보다는 전이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는데(Hobbs & Cole, 1976; Russell, 1974), 이는 첫 자녀 출산 후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 걸친 종단적 변화의 탐색이 유용함을 인식시켜 준다. Lawrence, Cobb, 그리고 Rothman 등(2008)은 첫 자녀 출산 전부터 부모기로 전이하는 동안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무자녀 부부보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더 크게 감소하였다. 신혼부부 130쌍을 6년 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무자녀 어머니에 비해 부모기 전이 동안 결혼만족도 평균이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였다(Shapiro, Gottman, & Carrère, 2000). 결혼만족도 변화에서 부부 간 차이를 탐색한 연구에서,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내가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욱 감소하는 양상이 보고되었다(Kurdek, 2005). 하지만 Kurdek (2005)의 연구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들도 포함된 결과

이다. 이에 반해 결혼 후 첫 3년 동안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변화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다(Lawrence, Pederson, & Bunde et al., 2008). 또한 신혼부부 464쌍을 대상으로 4년 간 6개월마다 결혼만족도를 측정한 Lavner와 Bradbury(2010)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변화유형이 모두 5개로 유사한 패턴을 도출하였으나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경로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5년에 걸쳐 감소하였고,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김연하, 2016).

이상의 종단적 연구들은 결혼 초기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변화는 감소하는 패턴에서 유사하지만 결혼만족도에서의 부모 간 차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 대부분은 무자녀 부부까지 포함시켜 결혼 초기 만족도 변화를 탐색하고 있어 첫 자녀 출산 시점부터 결혼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후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평균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되, 변화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부모됨 이후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한 개입에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이 거론되어 왔다(서미정, 2011; 손영빈·윤기영, 2011; 안재진, 2011; 엄성혜·전효정·고은경, 2017; 임현주·이대균,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모의 결혼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탐색한 서미정(2017)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화패턴과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와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주수산나·전혜정, 2016), 이는 1년 간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초점을 둔 단기 종단적 연구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가 영유아기에 걸쳐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으로 긍정적 지표인 결혼만족도와 부정적 지표인 부부갈등은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부부갈등은 배우자 간 부정적 상호작용을 말하는데, Kluwer와 Johnson(2007)은 293쌍의 네덜란드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기에 부부갈등 빈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부모기 전이에 걸쳐 결혼만족도 수준은 더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취업모와 전업모 모두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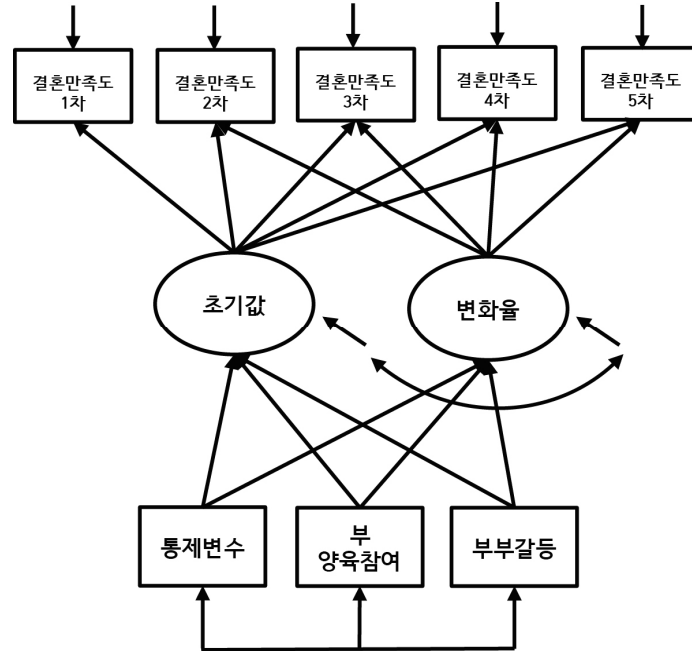
대균, 2012). 주수산나와 전해정(2016)은 첫 자녀 출산 후 경험하는 부부갈등이 이후 1년 동안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 반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에 경험한 부부갈등 수준이 자녀가 영유아기까지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 개인 및 가구 특성이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Kluwer, 2010; Twenge, Cambell, & Foster, 2003). Belsky와 Rovine(1990)은 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더욱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 또한 부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첫 자녀 임신동안 아내가 취업한 남편의 전반적인 결혼적응이 더 높았으며(고선주·옥선화, 1993a),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첫 자녀 출산 후 남편에게 애정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주·옥선화, 1993b). 이와 같이 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구 특성이 부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함에 있어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모 취업, 그리고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는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5년간 어떠한 변화패턴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 이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요인으로서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 특성으로서 부부갈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 증진을 위해 부모기 전이 단계에서 초기 개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자료는 2008년부터 수집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5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1차년도에 2,078가구를 표집하고, 2차년도에 52가구, 3차년도에 20가구를 추가로 표집하여, 전체 표본은 1, 2, 3차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2,150가구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최종 표본은 1차년도에 첫 자녀를 출산한 984가구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1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2.6세($SD = 4.0$)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0.1세($SD = 3.6$)이었다. 최종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39.9%(380명), 37.6%(368명)로 가장 많았다. 취업 중인 어머니는 35.6%(347명)이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1.7만원($SD = 140.5$)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i>n</i>	%	<i>M</i>	<i>SD</i>
아버지 연령				32.6세	4.0
어머니 연령				30.1세	3.6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9	28.3		
	전문대(기능대학) 졸업	217	22.8		
	대학교 졸업	380	39.9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86	9.0		
	계	952	100.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9	27.5		
	전문대(기능대학) 졸업	279	28.5		
	대학교 졸업	368	37.6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63	6.4		
	계	979	100.0		
모 취업 여부	취업	347	35.6		
	미취업	629	64.4		
	계	976	100.0		
월 평균 가구소득				311.7만원	140.5

2. 변수 측정

가.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Schumm, Nicols, 그리고 Schectman 등(1983)이 고안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 (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총 4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만족도 수준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Cronbach's α 값은 1 ~ 5차년도 모두 각 .9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Cronbach's α 값은 1 ~ 5차년도 각각 .92, .92, .91, .91, .93이었다.

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한국아동패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홍성례(1995)가 사용한 남편의 가족역할수행 척도 가운데 '부모 역할' 영역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6문항 중 영유아기 양육에 부합하지 않는 2개 문항('자녀들의 공부나 숙제를 도와준다',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식 날을 잊지 않고 참가한다')이 제외되었다. 자녀의 발달단계를 반영하여 조사년도에 따라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문항은 1, 2차년도에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로 수정되었고,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문항은 1, 2차년에는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로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이외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등이 포함되어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지각한 것으로 측정되어,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1차년도 Cronbach's α 는 .75이다.

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가 고안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항은 '남편(아내)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아내)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 버린다' 등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 값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89,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91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1) 부, 모 연령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만 나이를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 연령은 만 19세부터 50세까지, 어머니 연령은 만 19세에서 46세까지 분포하였다.

2) 부, 모 학력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각자 자신의 최종 학력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기능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3) 모 취업

모 취업 여부는 미취업일 경우 0, 취업일 경우 1로 코딩하였다.

4) 가구소득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을 만원 단위로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0~990만원까지의 응답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0원',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900만원', '901~1000만원'으로 범주화하여 0에서 10까지 재코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자녀 출산 후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5년 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선형모형, 자유모수변화모형 및 이차함수모형을 비교하였다.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선형모형일 때 1~5차년도 각각 0, 1, 2, 3, 4로 설정되며, 이차함수모형일 때는 0, 1, 4, 9, 16으로 설정된다. 자유모수변화모형은 두 시점 사이에 관찰된 변화와 비교해 나머지 관찰 시점의 변화가 평가되는데(Bollen & Curran, 2005),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5차년도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2, 3, 4차년도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검증과 *CFI*, *TLI*, *RMSEA*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CFI*와 *TL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며, *RMSEA*는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Bentler, 1990).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Mplus 5.2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

첫 자녀가 출생한 후부터 자녀가 만 4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모형, 자유모수변화모형 및 이차함수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아버지 결혼만족도의 경우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선형모형에 비해 자유모수변화모형의 X^2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X^2(3) = 16.627, P < .005$]. 전반적인 적합도에서는 자유모수변화모형이 선형모형 및 이차함수모형에 비해 보다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선형모형에 비해 자유모수변화모형의 X^2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X^2(3) = 13.907, P < .005$], 자유모수변화모형과 비교했을 때 이차함수모형의 X^2 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1) = 0.193, P > .10$]. 자유모수변화모형은 선형모형 및 이차함수모형에 비해 *CFI*와 *TLI* 지수는 조금 높은 수준인 반면, *RMSEA* 지수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함수 모두 세 모형 가운데 자유모수변화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를 가장 잘 적합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매년 다른 속도로 변화하는 비선형적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통계치	선형모형	자유모수변화모형	이차함수모형
아버지 결혼만족도			
$X^2(df)$	43.197(10)***	26.570(7)***	27.982(6)***
CFI	0.953	0.973	0.969
TLI	0.953	0.961	0.949
RMSEA	0.059	0.054	0.062
어머니 결혼만족도			
$X^2(df)$	31.949(10)***	18.042(7)**	17.849(6)***
CFI	0.984	0.992	0.991
TLI	0.984	0.989	0.986
RMSEA	0.048	0.040	0.045

** $p < .01$, *** $p < .001$

〈표 3〉은 자유모수변화모형에 기초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 및 변화율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 출산 후부터 자녀가 만 4세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결혼만족도의 초기값은 아버지(4.394)가 어머니(3.941)보다 높았으며, 이후 변화율은 어머니(-0.244)가 아버지(-0.407)에 비해 더딘 속도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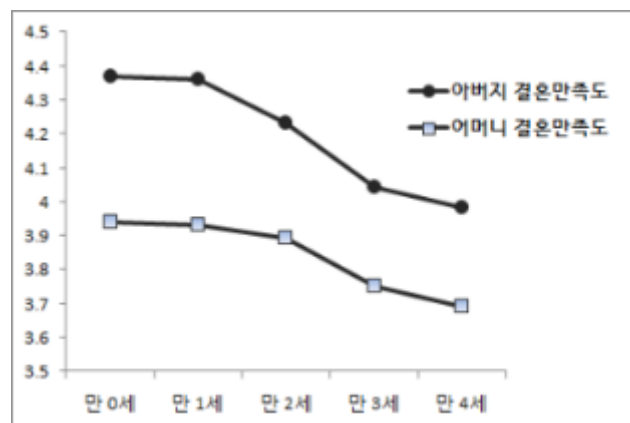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 및 변화율의 변량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 및 변화경로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은 부적 상관(-0.047)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첫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에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결혼만족도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부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변인		추정치	표준오차
아버지 결혼만족도			
평균	초기값	4.394 ^{***}	0.023
	변화율	-0.407 ^{***}	0.028
변량	초기값	0.159 ^{***}	0.017
	변화율	0.096 ^{***}	0.030
초기값과 변화율 상관계수		-0.004	0.018
어머니 결혼만족도			
평균	초기값	3.941 ^{***}	0.025
	변화율	-0.244 ^{***}	0.028
변량	초기값	0.341 ^{***}	0.023
	변화율	0.102 ^{***}	0.029
초기값과 변화율 상관계수		-0.047 [*]	0.020

* $p < .05$, *** $p < .001$

첫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4세까지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첫 자녀 출산 후 자녀가 만 1세까지 결혼만족도 수준은 거의 변화 없다가 자녀가 만 4세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결혼만족도의 감소하는 속도가 더욱 가파르며, 5년 간 모든 측정 시점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결혼만족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부모의 결혼만족도 평균 변화

2.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부갈등과는 부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버지의 양육참여보다는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과 결혼만족도 간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 및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부부갈등 수준이 낮았다.

<표 4>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 결혼만족도	모 결혼만족도	부 양육참여	부 지각 부부갈등	모 지각 부부갈등
부 결혼만족도					
모 결혼만족도	.35***				
부 양육참여	.18***	.56***			
부 지각 부부갈등	-.46***	-.45***	-.30***		
모 지각 부부갈등	-.31***	-.67***	-.41***	.59***	

주) 각 변인들은 모두 1차 시점에 측정된 것임.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추정치 및 적합도 통계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과 함께 통제변수로 아버지 연령, 아버지 학력, 모 취업 및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에는 아버지 연령 및 학력, 모 취업 등의 통제변수와 아버지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미취업일 때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율에는 어머니 취업만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0.116)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 중일 때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더디게 감소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 중이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이 낮기

때문에, 이후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에는 통제변수인 어머니의 연령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자신이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변화율에는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버지 양육참여의 부적 영향(-0.130)과 부부갈등의 정적 영향(0.186)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녀 출산 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더딘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변인들의 초기값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후 감소하는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가 부부 간 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 때 결혼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후 감소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

예측요인 (1차)	아버지 결혼만족도		예측요인 (1차)	어머니 결혼만족도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부 연령	-0.009*	0.001	모 연령	-0.011**	-0.001
부 학력	0.056**	-0.007	모 학력	0.031	0.036
모 취업	-0.090*	0.116*	모 취업	0.017	-0.016
가구소득	0.021	-0.033	가구소득	0.014	0.014
부 양육참여	0.054*	0.017	부 양육참여	0.322***	-0.130***
부 지각 부부갈등	-0.378***	0.071	모 지각 부부갈등	-0.487***	0.186***
	$\chi^2(df) = 67.225(25)^{***}$			$\chi^2(df) = 76.916(25)^{***}$	
적합도	CFI = 0.959 TLI = 0.934 RMSEA = 0.041		적합도	CFI = 0.976 TLI = 0.961 RMSEA = 0.046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가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는 모 취업 여부만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해서는 첫 자녀 출산 후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과 같은 양육 및 부부 특성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영유아기 동안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자녀 출산 후부터 5년 간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패턴이 나타났다. 즉 첫 자녀가 출생한 후부터 물리적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결혼만족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만족도의 종단적 변화경로를 탐색한 연구들에서 첫 자녀 출산 후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 일관된다(김연하, 2016; Lawrence Cobb, & Rothman et al., 2008).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첫 자녀 출산으로 인해 부모 역할이 추가됨에 따른 고충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결혼만족도를 추적한 연구들에서 자녀 출산한 부부가 무자녀 부부에 비해 결혼만족도 감소폭이 더 크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Lawrence, Cobb, & Rothman et al., 2008; Shapiro et al., 2000). 하지만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 모두 결혼 후 1년 간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McHale & Huston, 1985), 부모됨만으로 결혼만족도 감소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기 전이 동안 결혼적응의 가장 큰 예측인자는 출산 전의 결혼적응이며(고선주·옥선화, 1993b; Wallace & Gotlib, 1990), 결혼만족도의 감소를 늦추는 요인이 임신 전 결혼만족도라는 결과(Lawrence, Cobb, & Rothman et al., 2008)를 통해 부모됨이 결혼만족도 감소를 가속화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에 첫 자녀 출산 후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이해함에 있어 부모 역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첫 자녀 출산 후 1년 동안에 아버지 및 어머니 모두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감소하지만 자녀 출산 후 1년 정도 경과 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첫 자녀 출산을 경험한 부부들은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느끼는 등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연구결과들(이숙현, 1990; Deave &

Johnson, 2008)을 통해 부모기로 전이한 부모들은 자녀 출산 후 1년 정도는 새로운 부모 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이 결혼만족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의 평균적인 변화경로를 파악한 것이므로 결혼만족도 변화패턴의 유사성에 따른 변화유형 구분의 검증은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지만 모든 측정 시점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아버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기로 전이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보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메타분석결과(Twenge et al., 2003)와 같은 맥락이다. 첫 자녀 출산은 부모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부모됨의 의미와 경험에 따른 차이가 결혼만족도 수준에서 부모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부모기로 접어들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애정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개입하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작아진다(Belsky, Lang, & Rovine, 1985). 게다가 어머니가 여전히 아버지에게 비해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환, 2012). 이처럼 부모됨 이후 부모 역할에 할애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부부만의 시간이 감소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부부 간 상호작용 부족 등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결혼만족도 수준 및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영향요인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통제변수로 설정된 부모 개인 및 가구 특성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아버지 결혼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에는 어머니의 연령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만족도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Belsky와 Rovine(1990)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은 낮은 연령뿐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으로 인해 시간, 에너지, 헌신 및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됨의 도전에 대한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혼 연령이 1990년 24.8세에서 2009년 28.7세로 20년 동안 4세 증가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첫 자녀 출산의 평균 연령은 1999년도에 27.38세에서 2009년도에 29.85세로 10년 사이 2세 가량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이처럼 우리나라의 초혼 및 첫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부모의 연령이 낮다고 해서 부

모됨의 준비가 덜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첫 자녀 출산한 시점(2008년)에 아버지 및 어머니 평균 연령은 각각 32.6세와 30.1세(표 1 참조)이며,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 때 시간 흐름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이 감소함을 확인한 연구(서미정·최은실, 2017)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가 취업 중일 때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초기값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첫 자녀 임신기에 아내가 취업일 때 아버지의 전반적인 결혼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고선주·옥선화, 1993a; 고선주·옥선화, 1993b). 하지만 여성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근무 상태가 아닐 때 더욱 불안하고 우울하며(Klein, Hyde, & Essex et al., 1998), 부모기 전이 후 가사노동 분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luwer, Heesink, & Vliert, 1996). 게다가 Perry-Jenkins, Goldberg, 그리고 Pierce 등(2007)은 아내가 야간 근무형태의 취업일 경우 낮 동안 자녀 돌봄은 전적으로 부모의 부담이 되므로 야간 근무는 자녀 출산 후 첫 1년 동안 부부갈등과 우울 증상에 위험 요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취업 유무만을 고려한 연구들 간에 비일관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어머니의 취업 유무 자체 보다는 취업 상태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첫 자녀 출산 후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율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더욱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미정(2017)의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가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유형과 더욱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관된다. 이는 부모를 비롯하여 성인의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영유아기 동안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가 남편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지각으로 측정됨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높게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어머니 자신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첫 자녀 출산 즈음에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시간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더디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간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Kluwer 등(1996)의 연구에서 첫 자녀 출산 후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한 갈등 빈도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비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감소에 더 강하게 관련되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에 비해 부부간의 문제(Doss, Atkins, & Christensen, 2003) 및 이혼(Amato & Previti, 2003)을 더욱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예측요인이 다름을 밝힌 연구(Lawrence, Pederson, & Bunde et al., 2008)에서 어머니는 의사소통 및 갈등 관리가 가장 강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관된다. 아버지 및 어머니가 각자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만 관련되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관계적 특성에 더욱 영향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생 후부터 영유아기까지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결혼만족도 증진에 유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추이를 5년 간 추적하였으나, 후속 출산 여부를 통제하지 못해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 탐색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기 전이 동안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부부의 성격할 태도(MacDermid, Huston, & McHale, 1990) 및 남편의 성적 친밀감(Lawrence, Pederson, & Bunde et al., 2008)과 같은 요인들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변화와도 관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첫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 시점에 측정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수준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갈등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의존적 변수임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의 변화와 결혼만족도 변화 간의 관련성이 어떠한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를 출산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결

혼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준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결혼만족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증진에 더욱 초점을 둔 개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사업에서 결혼관계 및 결혼 적응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완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모 모두의 결혼만족도 초기값뿐 아니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 공동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 자신의 결혼만족도 변화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정부기관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기술 훈련 등이 포함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선주·옥선화(1993a).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 첫 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2), 55-67.
- 고선주·옥선화(1993b).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I: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부부 결혼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3), 127-141.
- 김연하(2016). 한국 아동패널 2008-2012 자료를 활용한 자녀 출산 후 5년간의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궤적. 아동학회지, 37(4), 47-56.
- 서미정(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 부부 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2(6), 107-121.
- 서미정(2017).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 중단적 관련성. 육아정책연구, 11(3), 47-64.
- 서미정·최은실(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양상. 유아교육학논집, 21(5), 377-397.
- 손영빈·윤기영(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안재진(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 엄성혜·전효정·고은경(2017). 부의 양육참여가 모의 온정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8(1), 153-167.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 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임현주·이대균(2012).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 주수산나·전혜정(2016). 부모기 전이 부부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8(3), 60-87.
- 통계청(2010). 통계청, 저출산 및 인구정책 세미나 - 前 미국인구학회장 초청 강연 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Booth, A., Johnson, D. R., & Rogers, S. J. (2007). *Alone together: How marriage in America is chang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mato, P. R., & Previti, D. (2003). People's reasons for divorcing: Gender, social class, the life course, an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 602 - 626.
- Belsky, J., & Kelly, J. (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Why some couples grow closer and others apart*. New York: Dell.
- Belsky, J., Lang, M. E., & Rovine, M. (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3), 567-577.
- Belsky, J., & Pensky, E. (1988).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33-156.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1), 5-19.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llen, K. A., & Curran, P. J. (2005).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Hoboken, NJ: Wiley.
- Bradbury, T. N. (1995). Assessing the four fundamental domains of marriage. *Family Relations*, 44(4), 459-468.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64-980.
- Butler, M. H. (1987).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the marital subsystem of the family. *Family Perspective*, 21, 147-162.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Deave, T., & Johnson, D. (200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hat does it mean for fath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3(6), 626-633.
- Doss, B. D., Atkins, D. C., & Christensen, A. (2003). Who's dragging their feet? Husbands and wiv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165 - 177.

- Fincham, F. D. (1998). Child development and marit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2), 543-574.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87).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4), 797-809.
- Hawkins, M. W., Carrere, S., & Gottman, J. M. (2002). Marital sentiment override: Does it influence couples' percep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193-201.
- Hobbs, D., & Cole, S. P. (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A decade re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4), 723-731.
- Klein, M. H., Hyde, J. S., Essex, M. J., & Clark, R. (1998). Maternity leave, role quality, work involvement, and mental health one year after deliv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2), 239-266.
- Kluwer, E. S. (2010). From partnership to parenthood: A review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2), 105-125.
- Kluwer, E. S., & Johnson, M. D. (2007). Conflict frequency and relationship quality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5), 1089-1106.
- Kluwer, E. S., Heesink, J. A. M., & Van de Vliert, E. (1996). Marital conflict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ai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4), 958-969.
- Kurdek, L. A. (2005).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early in marriage: A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68-84.
- LaRossa, R. (1986). *Becoming a parent*. Newbury Park, CA: Sage.
- Lavner, J. A., & Bradbury, T. N.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171-1187.
- Lawrence, E., Pederson, A., Bunde, M., Barry, R. A., Brock, R. L., Fazio, E., Mulryan, L., Hunt, S., Madsen, L., & Dzankovic, S. (2008). Objective ratings of relationship skills across multiple domain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rajector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3), 445-466.
- Lawrence, E., Cobb, R. J., Rothman, A. D., Rothman, M. T., & Bradbury, T. N. (2008). Marital satisfactio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41-50.

- Li, T., & Fung, H. H. (2011). The dynamic goal theory of marital satisfac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5*(3), 246-254.
- MacDermid, S. M., Huston, T. L., & McHale, S. M. (1990). Changes in marriage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dividual differences as a function of sex-role attitudes and change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2), 475-486.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Publishers.
- McHale, S. M., & Huston, T. L. (1985).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the marriage relation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6*(4), 409-433.
- Perry-Jenkins, M., Goldberg, A. E., Pierce, C. P., & Sayer, A. G. (2007). Shift work, role overload,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23-138.
- Russel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 294-302.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Shapiro, A. F., Gottman, J. M., & Carrère, S. (2000). The baby and the marriage: Identifying factors that buffer against decline in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59-70.
- Twenge, J. M., Campbell, W. K., Foster, C. A. (2003).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3), 574-583.
- Vaillant, C. O., & Vaillant, G. E. (1993). Is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an illusion? A 40-year stud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230-239.
- Wallace, P. M., & Gotlib, L. H. (1990). Marit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1), 21-29.

·논문접수: 11월 5일 / 수정본 접수 12월 5일 / 게재 승인 12월 17일

·교신저자: 서미정, 제주대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부교수, mjseo@jejunu.ac.kr

Abstract

Trajectories in and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Mijung Se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rajectories in and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parents with one year old baby.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with a sample of 984 households.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decreased over time after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However,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decreased more steeply than mothers'. Furthermore, mothers' employment was associated with the changes of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Father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predicted change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factors such as father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are more high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than fathers'. Also, the study suggests that parent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organized to promote father involvement and to resolve marital conflict.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marital satisfaction, father involvement, marital conflict, latent growth modeling